

傳統思想과 書院建築配置의 構成 原理

Composition Principle of Seo-Won Architecture from the View of Its Disposition and Korean Traditional Thought

박 정 해*

Park, Jeomg-Hae

한 동 수**

Han, Dong-Soo

Abstract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 Seowon which from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was complexly reflected in 『the illustration of Taiji(太極圖說)』, Five-Elements school(陰陽五行說), 『Zhou Yi(周易)』 and a theory on spherical heaven and square ground(天圓地方) which based on orientalism. Also the theory of Xiangshu Xue(象數學) was a significant factor to decide the size(number of facade module) of Seowon architecture. So, in this study, how the oriental thought was adopted and reflected in existing 21 Seowon in South Korea.

The size of Seowon architecture was adopted a theory of combination with heaven, earth and human(天地人三合論) that based on the theory of Xiangshu Xue on 『the illustration of Taiji』 and 『Zhou Yi』. 『Zhou Yi』 was the central thought of Confucian culture in Joseon Dynasty, with which Seowon space was divided into two, ancestral rites space and lecture space. It coincides with balance of yin(陰) and yang(陽), Five-Elements(五行) and four seasons(四季節). In lecture space, lecture hall is relevant with the water(水) and winter, and front tower structure or outer three-door is the fire(火) and summer. Also, central garden means the soil(土) and center. Thus, the size and spatial composition was planned with the philosophy, 『the illustration of Taiji』, Five-Elements school and a theory on spherical heaven and square ground. Yin and yang has an idea of the heaven and earth, and Five-Elements has an idea of direction and season with which spatial composition of Seowon could be set. And the numeral meaning on the theory of Xiangshu Xue established an ideal background for spatial composition of Seowon architecture.

키워드 : 『太極圖說』, 陰陽五行, 間數, 空間構成 原理, 天圓地方

Keywords : 『the illustration of Taiji(太極圖說)』, Five-Elements school(陰陽五行說), the number of Kan(間數), Principles of Space Composition, a theory on spherical heaven and square ground(天圓地方)

1. 서론

조선은 儒學을 숭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儒學을 널리 전파하고 教化해야만 했다. 『東文選』 「國子監上梁文」에는 “儒宗이 크게 떨치니 나라가 잘될 것을 가히 보겠구나. 龔宇를 중수함에는 반드시 산천의 좋은 곳을 택할 것이로다.”¹⁾라고 하여 龔宇를 좋은 터에 건축함으로써 儒學의 繁盛함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건설

된 書院은 건축공간의 구성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書院이란 단어는 이미 신라시대에 등장²⁾하고 있으나 이것은 조선시대에 널리 확산된 書院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조선시대에는 儒學을 보급하기 위해 중앙의 成均館과 四部學堂, 지방의 鄉校와 書院 등 교육 건축물이 儒學思想을 바탕으로 다수 건립되었다. 그리고 이들 유교건축의 공간구성에는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규범이었던 儒學의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 정회원, 한양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azzy777@hanmail.net)

** 정회원, 한양대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1) 徐居正, 『東文選』 卷108 「國子監上梁文」, 한국고전종합DB : 儒宗大振 可觀國家之興 龔宇重新 必卜山川之勝.

2) 김은중, 『韓國의 書院建築』, 문운당, 7쪽, 1998

3) 신라의 書院은 秘書 또는 서적을 收藏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조선의 서원은 先賢祭享과 講學이 주목적이었다.

性理學의 개념이 잘 반영되어 士林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 결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명현 위인들을 봉사하고 그 덕망과 절의를 본받으면서 학문을 익히는 교육의 장으로써 사설 교육기관인 書院이 다수 건립되었다.⁴⁾

조선시대 書院은 16세기에 창설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배치유형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은 물론 지리환경에 따른 것으로 최초의 書院인 紹修書院은 어떤 특정된 배치 유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지방 士林의 정치적 성장과 함께 書院은 차츰 정형화 된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書院 濫設에 따른 폐단은 興宣大院君에 의해 궤멸되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性理學은 書院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理와 氣를 바탕으로 程朱系統의 朱子學을 위주로 만물이 생성하는 性理를 연구하는 동시에 인간의 본연을 연구하는 哲學思想으로 유학자들에게 우주와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⁵⁾ 이러한 儒學思想은 건축공간구성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구성요소로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후 서원 배치에 있어서 講學空間과 祭享空間의 軸 設定과 移動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陰陽五行과 天圓地方의 원리를 비롯하여 북송대의 유학자 周敦頤(1017-1073년)의 저술이자 朱子學의 聖典으로 여겨지는 『太極圖說』의 내용은 서원배치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미준치 47개 書院중 남한에 현존하는 21개 서원을 대상으로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陰陽五行과 『周易』, 『太極圖說』을 통하여 서원건축배치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書院建築 配置構成의 背景

朝鮮의 書院은 白鹿洞 書院을 모태로 탄생하게 되는데, 하늘이라는 大宇宙와 땅이라는 생산을 맡은 中宇宙와 사람이라는 고도의 사고능력과 정신을 가진 小宇宙로 나누어 생각⁶⁾한 天·地·人 三합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

≡ 4 巽 綠木 東南 長女	≡ 9 離 紫火 南 中女	≡ 2 坤 黑土 南西 母
≡ 3 震 碧木 東 長男	≡ 5 黃土 中央	≡ 7 兌 赤金 西 少女
≡ 8 艮 白土 北東 少男	≡ 1 坎 白水 北 中男	≡ 6 乾 白金 西北 父

그림 1. 九宮圖

간을 창조하였다. 『道德經』에는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본받는다.”⁷⁾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서로 대비되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우주만상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天人合一 思想은 서원건축을 통해서 완성된다.

紫薇宮⁸⁾은 北極星 주위의 星座로 사람들 마음속에 宇宙의 中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고⁹⁾ 이러한 天象의 중심을 模倣하여 서원의 가장 中心에 강당을 건설하게 된다.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東齋와 西齋를 배치하고 앞쪽에 外三門과 門樓를 배치하며 뒤쪽에는 서원건축의 정신적인 상징역할을 하는 祠堂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中心軸에는 祠堂과 講堂 그리고 門樓와 外三門을 배치하게 되는데, 九宮圖¹⁰⁾와 陰陽五行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中心軸 陽의 空間에 자리한 講堂은 書院建築의 꽃으로 儒敎文化의 天理를 구현하는 核心空間이다. 정면 5칸의 강당은 九宮圖의 中央을 상징하는 5(土)라는 숫자를 건물의 칸수에 적용한다. 宇宙萬物의 근본 요소와 변화를 象과 數로 설명하는 象數學은 5를 皇極數¹¹⁾라 하는데 원초적 慾望이 생기기전의 中庸 상태를 말한다. 中心軸 陰의 공간에는 書院建築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先賢을 祭享한 祠堂을 배치하여 陰과 陽의 공간은 서로의 존재가치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7) 『道德經』25장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8) 紫薇垣이라고도 하며 큰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 太微垣·天市垣과 더불어 三垣이라고 부르며, 별자리를 天子의 자리에 비유한 것이다.

9) 劉沛林, 『風水 中國人的環境觀』, 上海 上海三聯書店, 216쪽, 2005

10) 九宮圖는 洛書에서 유래한 숫자와 八卦에서 규정한 九宮을 圖式化한 그림이다.

11) 『書經』 『洪範九疇』에 나오는 문구로 五行, 五事, 八政, 五紀, 皇極, 三德, 稽疑, 庶徵, 五福 중에서 다섯 번째가 皇極이기 때문에 皇極數라 부른다.

4) 도용호, 이재현, “士林의 性向과 書院建築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1권 4호 통권78호, 122쪽, 1995

5) 文化公報部, 『韓國宗敎便覽』, 啓文社, 43쪽, 1984

6) 崔於中, 『十勝地風水紀行』, 동학사, 34쪽,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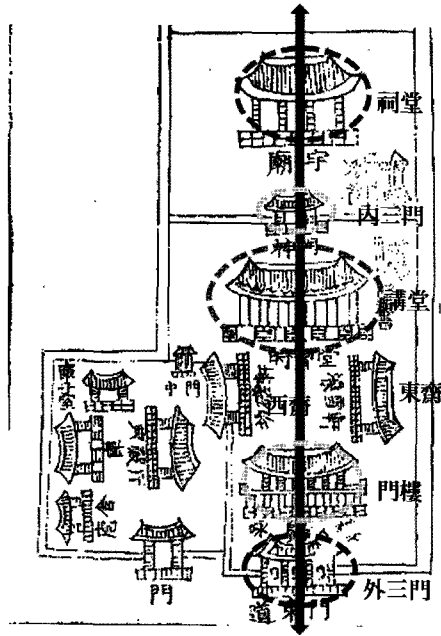


그림 2. 書院配置圖(출처:西岳書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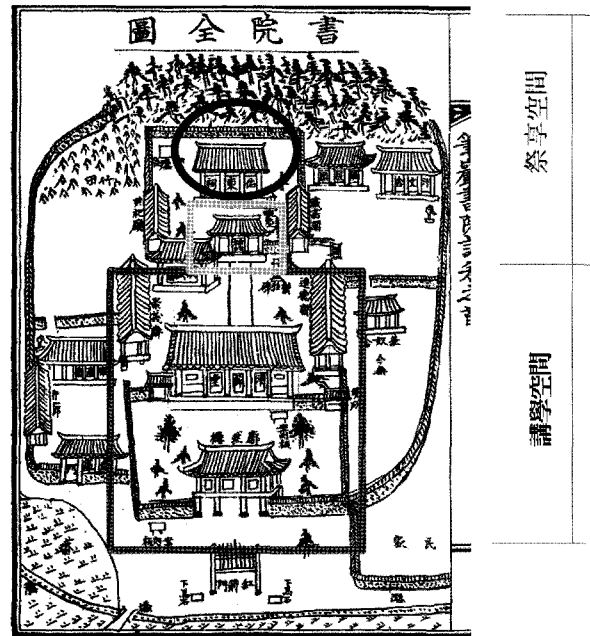


그림 3. 筆巖書院圖(출처:筆巖書院誌)

天地의 氣運은 陰陽의 조화를 통하여 생해지는 것이다. 『周易』에서 ‘陰만으로는 生命을 만들지 못하고, 陽만으로는 이루지 못한다’ 하였으니 陰陽의 均衡과 天地交泰를 통해서 生命誕生의 원리는 성립한다. 荀子는 “하늘과 땅이 합해져서 만물이 발생하고 陰과 陽이 만나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¹²⁾고 하였다. 『狐首經』, 「天元篇」에도 “氣가 변하여 품고 통하면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氣가 增育됨으로써 만물이 성해지면 氣에 靈이 깃들어서 만물이 형성된다. 氣가 응결되면 만물은 뿌리로 돌아가 시작도 되고 끝도 되어 천지의 근간을 이루니 하늘에서는 성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만물의 형태가 이루어진다.”¹³⁾라고 하여 陰陽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陰陽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하나로 완성되는 공간이 바로 講堂에 해당된다. 天地陰陽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宇宙觀을 형상화하여 天人合一의 가시적인 空間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陰來陽受하고 陽來陰受하는 陰陽의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九宮圖에서 震宮(≡)은 長男 宮位에 해당되며 동쪽을 의미하는데, 木이 하늘의 씨앗인 물(水)과 자궁인 흙(土)으로 빚어낸 천지의 子息¹⁴⁾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배치이다. 또한, 만물의 疏生과 成長이 동쪽에서 비롯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東齋를 배치하게 된다. 동쪽은 陽의 공간이자 木의 기운이 강하여 文을 담당하는 宮位이다. 서쪽은 陰의 공간이자 金의 기운이 강하고 흰색으로 수확을 뜻하기 때문에 西齋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의 바탕에는 陰陽五行과 『太極圖說』의 思想이 반영되었다. 陰陽의 기운이 합쳐진 형상의 太極圖와 일치하는 모습은 ‘天高地下’의 원리에 따라 서원 건축물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天父卦’¹⁵⁾는 건축물의 높이와 기둥 높이 그리고 문과 창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활용하였다면 ‘地母卦’¹⁶⁾은 中央 외에도 前後左右의 공간구성 원리를 확정하고 결정하는 尺度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¹⁷⁾ 또한 天圓地方의 원리는 書院建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먼저 건축물의 자체의 형상에도 그대로 나타나 하늘에 해당하는 지붕의 목재는 둥근 형상을 하고 있다. 즉 서까래가 그렇고 대들보가 또한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붕에 얹는 기와도 둥근 형상으로 陰陽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암기와 수키와가 둥근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둥근 형상을 이용해서 빗물을 막아내고 있다. 하부의 구조체는 거의 사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기둥은 둥글고 도리는 각이 졌으며 마루도 방도 모두 사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상징과 의미를 공간구성 요소 속에 반영하고 사각형의 건물과

12) 『荀子』, 「禮論篇」: 天地合而萬物生 陰陽接而變化起.

13) 장성규, 김혜정 역, 『완역 풍수경전』, 『狐首經』, 「天元篇」, 문예인, 334-335쪽, 2010. : 氣變舍利 萬物始生 氣乃炎蒸 萬物以成 氣乃凝靈 萬物以成 氣乃凝結 萬物歸根 成始成終 爲天地根 在天成象 在地成形.

14) 노병한, 『陰陽五行思想體系論』, 안암문화사, 73쪽, 2005

15) 乾卦를 말하며 하늘과 老父를 象徵한다.

16) 坤卦를 말하며 땅과 老母를 象徵한다.

17) 高友謙, 『理氣風水』, 北京 團結出版社, 125쪽, 2006

원형의 기둥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태극의 전체는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다.”¹⁸⁾라고 하였는데, 『孝經授神契』에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인간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며 五臟은 五行을 본뜬 것이고 팔다리는 사계절을 본뜬 것”¹⁹⁾이라고 하였는데, 서원 건축물의 공간구성을 인체와 비유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祭享공간이다. 즉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곳이 머리고 얼굴이다. 이런 점에서 서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으로 어떤 분을 배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書院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자학자의 고증에 따르면 ‘天’자는 본래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²⁰⁾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비유라 할 수 있다.²¹⁾ 목은 몸체와 머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곳에 바로 3칸의 內三門이 위치하고 있어 陰과 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莊子』 「則陽」편에는 “陰陽은 서로 비추어서 서로 닮기도 하고 서로 다스리기도 한다”²²⁾고 하여 陰陽의 相補的인 관계성을 提示하고 있다. 『春秋繁露』 「人副天數」에는 “목 이상은 정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하늘과 같은 형상을 밝힌 것이고 목 이하는 풍후하고 낮고 흙을 닮은 것이다.”²³⁾라고 하였다. 즉 內三門 밖은 흙의 공간이니 바로 인간이 사는 땅을 의미한다. 邵康節의 『皇極經世書』에는 그 중에서도 “심장은 태극이라”²⁴⁾하였으니 가장 활발하고 끊임없이 박동하는 뜨거움을 간직한 心臟은 講堂에 해당한다. 東齋와 西齋는 心臟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양팔에 해당한다.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며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래에 서원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

좌우에 포진한 형상이다. 음식물을 섭취하여 소화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복부는 바로 앞마당 즉 明堂에 해당하며 치열하게 학문을 연마하고 다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地上에 우뚝 설 수 있는 발에 해당하는 공간은 바로 外三門에 해당한다. 내부와 밖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문이라 한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목처가 바로 외삼문에 해당하는 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朱子は 『朱子語類』 「性理一」에서,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서 네모나 있으니, 공평하고 올바르고 단정하고 곧은 것은 올바른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²⁵⁾라고 하였다. 鄭之雲(1509-1561)의 『天命圖說』에도 “사람은 하늘과 땅의 빼어난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으로 陽이 된다. 그러므로 머리는 반드시 하늘과 같이 둥글고 발은 반드시 땅과 같아 평평하고 바르며 直立하였다.”²⁶⁾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점은 天圓地方의 원리를 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書院建築의 配置構成原理

3.1 『太極圖說』과 書院配置의 原理

초기의 書院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정한 건축형식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학문하는 장소와 선현에게 祭享하는 공간이 갖는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고 그 해답은 古代 經典에 대한 朱子의 해석에서 찾았다.²⁷⁾ 서원 건축물의 구성요소에는 陰陽五行과 함께 『周易』과 『太極圖說』의 사상은 뿌리깊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太極圖說』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극이 動하여 陽을 낳고 動이 極하면 靜하니, 靜하여 陰을 낳고, 靜이 極하면 다시 動하니,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하는 것이 서로 그 근본이 된다. 陰과 陽으로 나누어져 兩儀가 성립된다.”²⁸⁾고 하였다. 서원건축을 크게 보면 陰의 공간인 祭享空間과 陽의 공간인 講學空間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바로 『太極圖說』의 ‘陰과 陽으로 나누어져 兩儀가 성립된다.’는 논리와 일치한다.

1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圓方數辨證說」, 한국고전종합DB : 太極之全體.

19) 『孝經授神契』: 人頭圓象天 足方法地 五臟象五行 四肢法四時.

20) 馮禹, 김갑수 옮김, 『동양의 자연과 인간이해』, 논형, 35쪽, 2009

21) 얼굴의 귀, 눈, 입, 코, 머리카락은 하늘의 五行을 본받고 얼굴의 입굽 구멍은 北斗七星에 해당되며 뱃속의 五臟六腑는 땅의 五行을 본받은 것이다. 또한 머리의 百會穴은 北極에 應하고 肛門은 南極에 應하여 사람의 척추가 人軸이 되는 것이다. (강진원, 『알기 쉬운 역의 원리』, 정신세계사, 64쪽, 2008.)

22) 『莊子』 「則陽」: 陰陽相照 相蓋相治

23) 董仲舒, 南基顯 譯 『春秋繁露』 「爲人者天」, 자유문고, 380쪽, 2005 : 頸以上者 精神尊嚴 明天類之狀也 頸以下者 豐厚卑辱 土壤之比也.

24) 邵康節, 노영균 옮김, 『皇極經世書』 「官物外篇」, 대원출판, 255쪽, 2009 : 心爲太極.

25) 黎靖德, 허택 이요성 역 『朱子語類』 「性理一」, 도서출판 청계, 542쪽, 2000 : 如人 頭圓象天 足方象地 平正端直 以其受天地之正氣.

26) 鄭之雲, 『天命圖說』, 청구기호 奎 7020, 奎 7846 : 故人爲天地之秀子而爲陽故 頭必如天 足必如地 而平正直立.

27) 김서진, “서원건축 감상방법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쪽, 2004

28) 李滉, 『退溪集』 「太極圖說」 민족문화추진회, 135쪽, 1977. :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互爲其根本 分陰分陽兩儀立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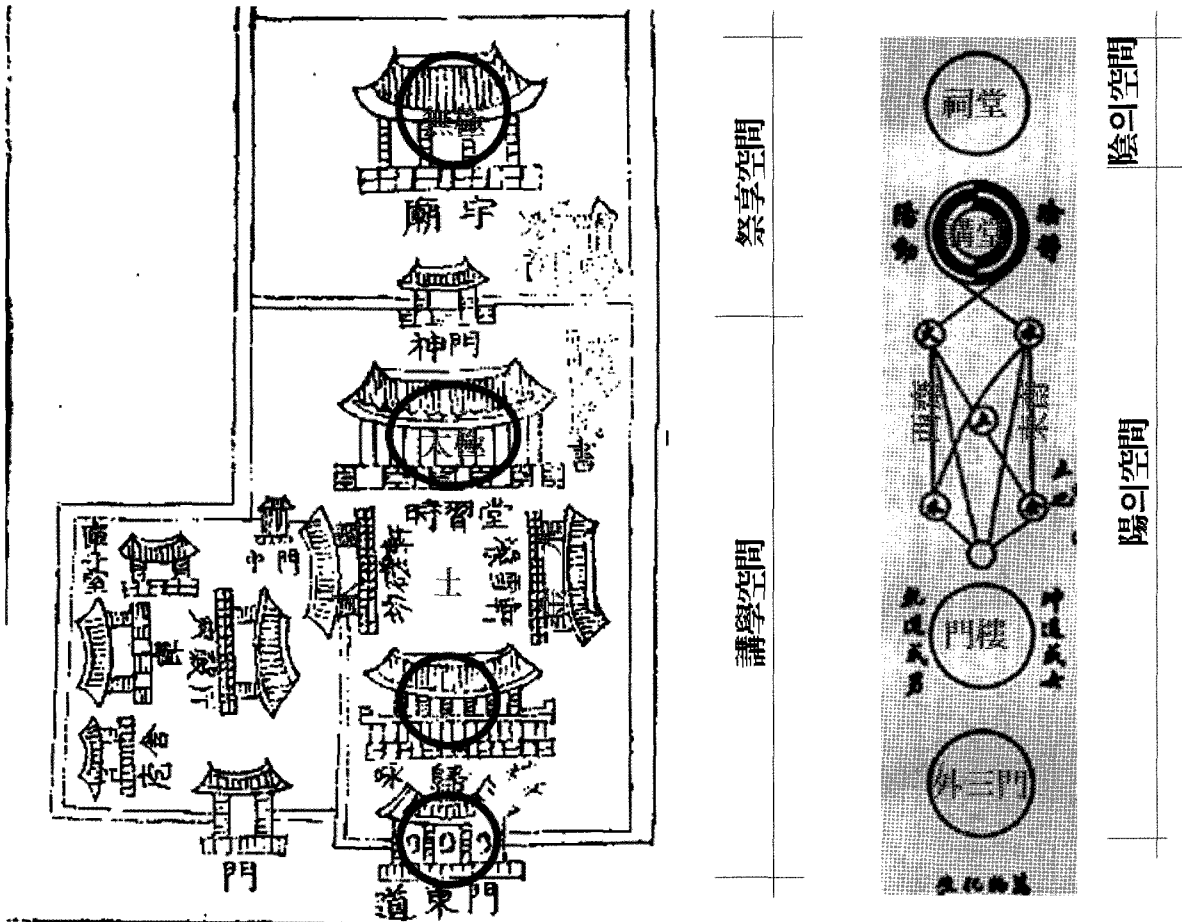


그림 4. 서원건축 공간구성
(출처: 西岳書院圖와 太極圖에 추가 작도)

서원건축의 전체공간은 無極의 공간이다. 陰도 陽도 아닌 공간이면서 陰과 陽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다시 五行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退溪는 『退溪集』 「太極圖說」에서 “陽이 변하고 陰이 합하여 水·火·木·金·土를 낳아서 五氣가 순차적으로 배풀어지고, 네 계절이 운행된다. 陰陽이란 바로 하나의 太極이며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 五行이 생하는데 각각 그 性이 하나씩이다.”²⁹⁾라고 하여 陽이 변하고 陰이 합하여 오행을 낳고 五行이 순차적으로 변하여 四季節이 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陰과 陽이 變하고 合하여 水·火·木·金·土 五行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陰陽이란 바로 하나의 太極이며 太極은 본래 無極이라 하였다. 이것은 태극과 오행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訓民正音解例』 「制字解」에도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과 오행뿐이다. 坤卦와 復卦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고요한 후에 음양이 된다. 무릇 생명을 지닌 무

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라.”³⁰⁾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음양과 오행에서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치는 음양과 오행뿐이라 하면서 무릇 생명을 가진 자가 어찌 음양과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祭享空間과 講學空間의 陰陽이 조화를 이루는 書院建築空間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太極圖說』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다. 이것은 無極에서 太極으로 그리고 兩儀와 四象, 八卦의 전개과정과 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無極은 祭享空間을 의미한다면 講堂은 太極에 해당되며, 金·水는 東齋에 木·火는 西齋에 해당하고 中心의 土는 강당 앞의 마당으로 明堂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부에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하여 ‘萬物生成’의 원은 서원의 입구와 일치 하는 형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祭享空間은 陰도 陽도 없는 그야말로 無念의 공간이다. 반

29) 李滉, 『앞의 책』 「太極圖說」, 135쪽 : 陽變陰合而生水 火 木 金 土 五氣 順布 四時 行焉 五行 一陰陽也 陰陽 一太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30)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면에 강당은 드디어 陰陽이 나타나 세상의 복잡 미묘함을 내포한 太極에 해당한다. 즉, 『說文解字注』에서 “음양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서로 교차하는 것”³¹⁾이라고 한 논리에 부합하고 있다. 그 외에 『太極圖說』에서, “乾의 道는 남자를 이루고, 坤의 道는 여자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두 기운이 서로 교감하여 만물을 변화 생성케 되는데 만물은 끊임없이 서로 생성하면서 무궁히 변화하는 것이다.”³²⁾라고 한 논리와도 부합하고 있다. 서원의 입구와 문루는 현실세계와 학문의 공간이 교차하여 복잡 미묘함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각각 나름의 성격과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性を 가진다는 논리성을 가진다. 즉 음양이 구분되어 오행을 만든다는 원리는 크게 보면 음양의 공간으로 구분되고 보다 세분하여 보면 오행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 한편 『太極圖說』에는, “하늘의 도를 세우는 것을 陰과 陽이라 하고, 땅의 道를 세우는 것을 柔와 剛이라 하고, 사람의 도를 세우는 것을 仁과 義”라고 말하였다.³³⁾ 또한, 『周易』 「卦辭傳」에는, “大衍의 數는 50이지만 사용하는 것은 49이다. 이를 나누어 둘로 만들어 하늘과 땅 兩儀를 상징한다. 한손에서 1개를 떼 내어 따로 가짐으로써 하늘, 땅, 인간의 三才를 상징한다.”³⁴⁾라고 하여 하늘의 道와 땅의 道 그리고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天·地·人 三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太極圖說』은 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원건축물의 공간구성에도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 즉 하늘에 해당하는 先賢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가지는 祭享空間과 땅에서 태어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門樓 혹은 外三門이 있으며, 사람의 道를 배우고 익히는 배움의 공간 즉 講堂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天·地·人 三합의 空間構成이다.

3.2 『周易』과 祭享空間의 構成原理

『周易』 「繫辭傳」上에는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것을 道라고 하였다.”³⁵⁾ 이와 같이 『周易』의 기본원리는 음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음양의 원리는 風水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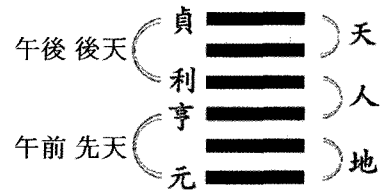


그림 5. 『周易』重天乾 卦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靑鳥經』에는 “陰과 陽이 융합해서 天地가 서로 통하게 되면 안에 있는 氣는 생명을 발생케 하고 밖에 있는 氣는 形態를 형성케 한다. 이 안밖의 氣가 서로 어울리면 좋은 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³⁶⁾라고 하여 陰陽의 원리가 氣의 바탕을 이루고 氣는 곧 風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된다.

조선 士林들의 학문연구는 『周易』을 바탕으로 『太極圖說』과 朱子學을 연구하였다. 이런 학문연구의 場인 서원건축에 『周易』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서원건축공간의 구성 원리에는 『周易』의 64卦가 적용되었다.

먼저 서원건축의 정신적 상징이고 頭腦에 해당하는³⁷⁾ 제향공간은 ‘天三地二’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설되어 있다. 즉 하늘을 상징하는 ‘三’이라는 숫자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어 『周易』의 ‘重天乾’卦에 해당한다. 乾은 형이상적인 性情으로써 하늘을 뜻하며, 天은 형이하적인 형상으로써 하늘을 가리킨다. 본래 天은 사람의 머리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이 땅에 그 기운을 내려 사람을 낳게 하는 본체임을 뜻하므로 乾과 마찬가지로 三才를 통솔 주관한다.³⁸⁾ 形而上의 정신적 상징으로서 존재가치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形而下的인 頭腦로서의 역할도 다양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서원건축에 있어서 제향공간은 정형적인 형상으로 굳어져 가장 구체적인 형식을 만들게 된다. 반면 제향공간이 形而上의 정신적인 支柱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書院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논란의 중심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先賢이 하늘에 머물면서 서원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하늘은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상징”³⁹⁾하는 것으로 祠堂의 祭享人物은 追加되기도 하고 移配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서원이 점

31) 염정삼, 『說文解字注』, 서울대학교출판부, 696쪽 2008: 陰易在天地間交午也.
 32) [宋] 周敦頤, 『太極圖說』: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化生萬物 萬物生而變化無窮焉.
 33) [宋] 周敦頤, 『앞의 책』: 故曰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34) 이기동, 『주역강설』 「繫辭傳」,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879쪽, 2008: 大衍之數五十 其用 四十有九 分而爲二 以象兩 掛一以象三.
 35)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36) 최창조 역, 『靑鳥經 錦囊經』, 민음사, 41쪽1993: 陰陽符合 天地交通 內氣萌生 外氣成形 內外相乘 風水自成.
 37) 万書元, 『古風老書院』,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9쪽, 2003
 38) 김석진, 『周易講解』大有學堂, 63쪽, 2009
 39) 『周禮』 「東官考工記」上: 天時變

점 政治化하고 세력화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조선 중기에 나타난 黨色은 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와 권력 다툼의 방편으로 발전하여 갔고 나름의 학문적인 논리전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畿湖學派와 嶺南學派로 양분되어 학문적인 논리 다툼과 함께 치열한 권력 다툼이라는 二重性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툼의 바탕에는 性理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祭享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논리 구성의 原因提供者 이면서 곧 論理의 차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학문적인 논리의 차이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黨派의 구성논리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치열함은 클 수밖에 없었다. 즉 자신들의 학문적 論理性이 채택되지 못하면 바로 政治的인 影響力을 喪失함과 동시에 목숨마저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證明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 차례의 土禍와 禮訟論爭에서 찾아볼 수 있다.

精神的인 支柱이자 學問的인 가늌자의 役割에 머물렀던 先賢祭享은 처음의 방향을 상실하고 정치적인 指向性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位次問題도 상당히 중요한 논란거리를 제공하는데 主配享者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아주 尖銳한 문제였고 서로가 양보하기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였다. 같은 정치 派閥 혹은 門下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位次問題는 집안 간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였고 學閥간의 自尊心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새로운 書院의 건립을 통하여 移配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결국은 書院이 門中化하고 濫設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3 書院建築의 칸수⁴⁰⁾와 상징성

書院建築의 공간은 藍溪書院부터 정형화 된 형식을 갖추게 되며,⁴¹⁾ 건축물의 칸수는 원칙적으로 홀수를 채택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부분적으로 짝수를 취하기도 한다. 吳廩는 『陽宅撮要』에서 “각 건축물의 칸수는 마땅히 홀수이어야 하며 짝수는 마땅치 않고 三, 五, 七칸은吉하다.”⁴²⁾라고 하여 홀수 칸을 강조하고 있다. 書院은 기본적으로 祠堂과 內三門, 講堂, 東齋, 西齋, 그리고 外三門으로 구성되는데, 표 1.과 같이 각 건축물의 칸수를 살펴보면 祠堂과



그림 6. 筆巖書院 祭享空間 3칸



그림 7. 道東書院 水月樓 上下 6칸

內三門 그리고 東齋와 西齋는 3칸이고, 講堂은 5칸이며 3칸의 外三門을 門樓 형식으로 건설한 경우에 上·下空間을 합치면 6칸이 된다. 이곳에 天·地·人의 三合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祠堂은 하늘을 상징하고 講堂은 사람을, 그리고 6칸의 門樓는 땅을 상징하고 있다. 祠堂은 유학의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3칸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朱子家禮』 「祠堂」에는 “사당의 제도는 세 칸이다.”⁴³⁾라고 하였는데 退溪는 『退溪集』 「啓蒙傳疑」에서, “3은 하늘의 象이라.”⁴⁴⁾하였고, 『皇極經世書』를 인용하여 “주역에 진짜수가 있는데 3뿐이라 하늘을 셋으로 한다.”⁴⁵⁾라고 하였다. 『白虎通義』에도 “天道는 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天에는 三光 즉 해와 달과 별이 있고 地에는 三形 즉 높은 곳 낮은 곳 평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삼등 즉 군부, 부친, 스승이 있다. 物은 三

40) 여기서 칸수는 모두 정면의 규모를 지칭한다.

41) 이상해, 『공궐·유교건축』술, 247쪽, 2005참조

42) [淸] 吳廩, 『陽宅撮要』 「間數」, 北京 北京理工大學出版社, 125쪽, 2008 : 每棟間數 宜單不宜雙 三五七間爲吉.

43) 朱子, 『朱子家禮』 「祠堂」 : 祠堂之制三間

44) 李滉, 『앞의 책』 「啓蒙傳疑」, 144쪽 : 三天之象

45) 李滉, 『앞의 책』 「啓蒙傳疑」, 147쪽 : 易有眞數 三而已 參天者.

표 1. 각 서원별 감당과 사당, 문루 구성

書院 名	主配享	講堂	칸수	祠堂	칸수	門樓	칸수	建立年度	備考
龍淵書院	李德馨		정면3칸 측면2칸		정면3칸 측면2칸			1691	
坡山書院	成守琛	察倫堂	정면4칸 측면2칸		정면3칸 측면2칸			1568	
德峰書院	吳斗寅	正義堂	정면5칸 측면2칸	德峯祠宇	정면3칸 측면1.5			1695	
深谷書院	趙光祖	日昭堂	정면3칸 측면3칸		정면3칸			1650	
牛渚書院	趙 憲	麗澤堂	정면4칸 측면2칸		정면3칸 측면2칸			1648	
彰節書院	死六臣		정면5칸 측면2칸	六臣祠	정면5칸 측면2칸	拜鵠樓	정면3칸 측면2칸	1685	2층루
忠烈書院	洪命壽		정면3칸 측면2칸	忠烈祠	정면3칸 측면1칸			1650	
遯巖書院	金長生	養成堂	정면5칸 측면2칸	崇禮祠	정면3칸 측면3칸			1634	
魯岡書院	尹 煌		정면5칸 측면3칸		정면3칸 측면3칸			1675	
武城書院	崔致遠	講堂	정면5칸 측면3칸	泰山祠	정면3칸 측면3칸	絃歌樓	정면3칸 측면2칸	1615	2층루
筆巖書院	金麟厚	清節堂	정면5칸 측면3칸	祐東祠	정면3칸 측면2칸	廓然樓	정면3칸 측면2칸	1590	2층루
陶山書院	李 滉	典教堂	정면4칸 측면2칸	尙德祠	정면3칸 측면2칸			1574	
紹修書院	安 珦	明倫堂	정면4칸 측면3칸	文成公廟	정면3칸 측면3칸			1543	
玉山書院	李彦迪	求仁堂	정면5칸 측면2칸	體仁廟	정면3칸 측면2칸	無邊樓	정면7칸 측면2칸	1573	2층루
西岳書院	薛 聰	時習堂	정면5칸 측면3칸		정면3칸 측면2칸	詠歸樓	정면5칸 측면1칸	1561	2층루
道東書院	金宏弼	中正堂	정면5칸 측면3칸		정면3칸 측면3칸	水月樓	정면3칸 측면2칸	1605	2층루
玉洞書院	黃 喜	蘊輝堂	정면5칸 측면2칸	景德祠	정면3칸 측면2칸	清越樓	정면5칸 측면3칸	1714	2층루
興巖書院	宋浚吉	進修堂	정면5칸 측면3칸	興岳祠	정면3칸 측면3칸			1702	
藍溪書院	鄭汝昌	明誠堂	정면4칸 측면2칸		정면3칸 측면2칸	風咏樓	정면3칸 측면2칸	1552	2층루
屏山書院	柳成龍	立教堂	정면5칸 측면2칸	尊德祠	정면3칸 측면2칸	晚對樓	정면7칸 측면2칸	1613	2층루
金烏書院	吉 再	正學堂	정면5칸 측면3칸	尙賢廟	정면3칸 측면3칸	挹清樓	정면3칸 측면2칸	1570	2층루

으로 완성되므로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⁴⁶⁾ 라고 했다. 그러므로 祠堂은 3칸의 칸수를 취하여 하늘을 상징하고 서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땅의 위치에 해당하는 外三門은 3칸의 솟을 대문으로 건축하였으나, 道東書院을 비롯한 많은 서원의 경우 문루 형식으로 上下 6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표 1.과 같이 上下 10칸 혹은 14칸을 건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象數論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

와 6, 10의 숫자가 陰의 숫자이자 땅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退溪集』 「啓蒙傳疑」에는 “陰陽의 數가 易 대전에 근본 하였으니, 1·3·5·7·9를 天數로 삼아 陽에 속하고, 2·4·6·8·10은 地數로 삼아 陰에 속한다.”⁴⁷⁾라고 하여 4와 6, 10이 地의 숫자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象數易學』에도 “六과 八은 밭에 해당한다.”⁴⁸⁾라고 하여 6이 땅에 해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외에 3칸의 外三門은 『皇極經

46) 班固, 신정근 역주, 『백오통의』, 소명출판, 122쪽, 2005

47) 李滉, 『앞의 책』 「啓蒙傳疑」, 111쪽 : 本之易大傳 以一三五七九 爲天數屬陽 二四六八十爲地數屬陰

48) 張其成, 『象數易學』, 中國 廣西科學技術出版社, 17쪽, 2009

世書』「觀物外篇」에서 “땅의 體數는 四이고 用數는 三이다”⁴⁹⁾라고 하여 땅을 이루는 숫자는 四이나 활용하는 數는 三이라고 하였다. 즉, 비록 몸은 땅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활용할 때에는 天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天·地·人 三승의 원리가 적용된 3칸의 外三門을 건축하여 서원이 가지는 권위성까지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중간은 사람의 공간으로 5칸의 강당이 위치하게 된다. 『宋子大全』에는 “사당 앞에 講堂 다섯 칸이 있는데, 옛 廡屋의 제도를 사용하였다.”⁵⁰⁾라고 하여 강당의 다섯 칸은 옛 廡屋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5칸의 강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國語』「周語」에는 “하늘에 여섯 가지 기운과 땅에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 것은 천지의 변하지 않는 떳떳한 數이다. 하늘의 여섯 기운으로 經을 삼고 땅의 오행으로 緯를 삼아 경위가 어긋나지 않는 것은 文德이 구비된 표상이다.”⁵¹⁾ 라고 하여 ‘하늘에 여섯 가지 기운⁵²⁾과 땅의 다섯 가지 물질⁵³⁾을 천지의 떳떳한 數’ 라고 하면서 하늘의 여섯 기운과 땅의 五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文德이 구비된 표상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문덕이 구비된 공간의 중심에 5칸의 講堂이 위치하고 있다.⁵⁴⁾ 즉, 강학공학으로서 강당은 존재한다. 『退溪集』「啓蒙傳疑」에는 “河圖의 五生數는 陽에 속하고 五成數는 陰에 속한다.”⁵⁵⁾라고 하였고, “五는 陰과 陽이 모두 모인 곳이며, 十은 陰과 陽의 근본이다. 五와 十은 陰과 陽이 합한 數⁵⁶⁾라고 하였다. 즉, 五는 음과 양을 모두 포함한 數로서, 모든 학문을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中庸의 道를 이룩하고자 한 강당의 성질과 바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당은 서원의 중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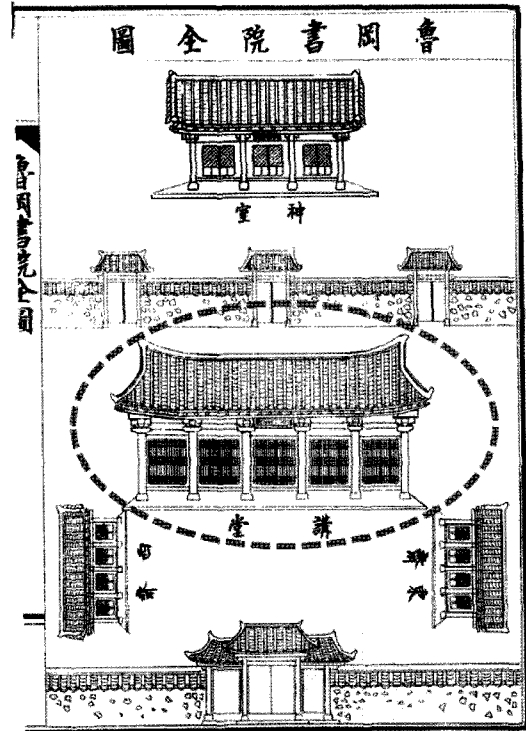


그림 8. 魯岡書院圖
(출처:魯岡書院誌)

인 공간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周易』「賁卦」에는 “五는 하늘에 위치한다.”⁵⁷⁾고 하면서 “왕은 반드시 가운데 거주한다.”⁵⁸⁾라고 하였다. 그리고 『增韻』에도 “五는 천지의 가운데 숫자다.”⁵⁹⁾라고 하여 강당이 5칸으로 건축된 이유와 함께 중심에 위치한 이유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강당은 세상의 중심이고자 했던 士林들의 바람이 그대로 녹아들어 건축된 중요한 건축물이다. 講學이 이루어지고 토론의 場이었으며 회합의 場이기도 하였던 강당은 書院을 대표하는 원장과 부원장의 사무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학문에 정진하여 세상에 우뚝 선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는 염원이 깃들여 있다.

그 외에 『皇極經世書』「官物外篇」에는 “하늘은 홀수이고 땅은 짝수이다”⁶⁰⁾라고 하였는데, 『谿谷集』「畸庵記」에는 “陽의 數는 ‘홀(奇)’이니 홀은 외롭게 마련이고, 음의 數는 ‘겹(偶)’이니 겹은 짝이 있게끔 되어 있다. 이를 유추하여 사물에 적용해 보면, 홀은 어울리기 어렵고 주체성이 강하며 도와주는 이가 없는데 그 부류는 속성상 君子가 되고, 겹은 서로를 빌붙으며 기회 포착을 잘하고 원조해

49) 邵康節, 노영균 옮김, 『앞의 책』「官物外篇」, 193쪽, 2009. : 地體數四而用三.
50) 宋時烈, 『宋子大全』 卷171 「遯巖書院 廟庭碑」, 한국고전 종합 DB : 祠前有講堂五架. 用古廡屋之制
51) 『國語』 3卷 「周語」下 : 天六地五 數之常也 經之以天 緯之以地 經緯不爽 文之象也.
52) 하늘이 가진 陰·陽·風·雨·晦·明의 六氣
53) 金·水·木·火·土의 五行을 말한다.
54) 파산서원과 우저서원, 도산서원, 남계서원은 강당이 4칸이고 용연서원과 충렬서원은 강당이 3칸이다. 그중에 파산서원과 우저서원, 용연서원, 충렬서원은 6.25 매 전소되어 이후에 증축하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산서원은 퇴계선생이 직접 학생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이 중심 건축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4칸으로 건설하였다.
55) 李滉, 『앞의 책』「啓蒙傳疑」, 111쪽 : 謂河圖 五生數屬陽五成數屬陰
56) 李滉, 『앞의 책』「啓蒙傳疑」, 121쪽 : 五者陰陽之總會 十者陰陽之原 五與十 陰陽之合也.

57) 『周易』「賁卦」 : 五 天位
58) 『周易』「賁卦」 : 王者必居土中
59) 『增韻』 : 五 天地之中數
60) 邵康節, 노영균 옮김, 『앞의 책』「官物外篇」, 237쪽 : 天奇而地耦.

주는 이가 많은데 그 무리는 속성상 小人이 된다.”⁶¹⁾라고 하였다. 이것은 數에서 君子와 小人으로 발전한 경우로 옛 선조들이 홀수를 선호하고 짝수를 기피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4. 結論

書院建築의 구성요소는 陰陽五行과 함께 『周易』 『太極圖說』의 사상이 뿌리 깊게 내포되어 있다. 특히 『太極圖說』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원 건축의 中心軸에는 外三門과 門樓 그리고 講堂과 祠堂을 배치하게 되는데, 九宮圖와 陰陽五行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春秋繁露』 「爲人者天」에는 “사람의 형체는 하늘의 數에 化하여 이루어진다.”⁶²⁾라고 하였으니 서원건축의 원리에는 하늘과 육체 그리고 陰陽이 들어 아닌 하나라는 원리가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정신과 하늘에 해당하는 祭享空間은 圓形이고 육체와 땅에 해당하는 講學空間은 각진 형상이다. 陰에 해당하는 祭享空間과 陽의 공간에 해당하는 講學空間은 둘로 나눌 수는 있지만 서원이라는 하나의 공간속에 포함되어 있어 陰陽이 하나로 혹은 둘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書院建築의 칸수에는 『太極圖說』을 바탕으로 天·地·人 三合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즉, 祠堂과 內三門 그리고 東齋와 西齋는 3칸이고, 講堂은 5칸이다. 3칸의 外三門을 門樓 형식으로 건설한 경우에 上·下 空間을 합치면 6칸이 되는데, 祠堂은 하늘을 상징하고 講堂은 사람을 그리고 6칸의 門樓는 땅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칸수에 대해서는 『皇極經世書』 「官物外篇」에서 “형상이 있으면 반드시 수가 있고 수가 만들어지면 형상이 있다.”⁶³⁾라고 하였으니 『太極圖說』에 바탕을 둔 象數學을 근간으로 구성된 숫자이다.

『周易』은 조선 유학사상의 핵심으로 공간구성원리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周易』을 바탕으로 음의 공간인 祭享空間과 양의 공간인 講學空間으로 양분하고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太極圖說』의

‘陰과 陽으로 나누어져 兩儀가 성립된다.’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五行의 논리와 사계절과도 부합하고 있는데, 講學空間에서 講堂은 水와 겨울에 해당한다. 전면의 樓 건축물 혹은 外三門은 火이며 여름에 해당하고 東齋와 西齋는 각각 木과 金 그리고 봄과 가을에 해당한다. 또한 마당은 土에 해당하고 中央을 의미한다. 講堂이 위치한 북쪽은 차분한 기운이 충만한 陰에 해당되어 산만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할 수 있어 학문 탐구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반면에 陽의 기운으로 가득 찬 門樓와 外三門은 개방형 건축물로 합리적인 공간배치와 방향성의 원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天·地·人 三合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太極圖說』은 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원건축물의 공간구성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즉 하늘에 해당하는 先賢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가지는 祭享空間 그리고 땅에서 태어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門樓 혹은 外三門 그리고 사람의 道를 배우고 익히는 배움의 공간 즉 講堂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각각 나름의 성격과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性을 가진다는 논리에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陰陽의 공간으로 구분되고 보다 세분하여 보면 五行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書院 건축물의 칸수와 空間構成은 陰陽五行과 『太極圖說』 그리고 天圓地方의 원리와 사상적 근간을 바탕으로 건축하였다. 陰과 陽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며, 五行은 방향과 계절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공간적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숫자는 象數學이 가지는 의미가 집약되어 서원 건축의 공간을 구성하는 사상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학문 탐구와 先賢祭享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 실천적인 완성품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1. 『太極圖說』
2. 『孝經授神契』
3. 『訓民正音解例』
4. 『春秋元命苞』
5. 『國語』
6. 『增韻』
7. 『周易』
8. 『莊子』
9. 『周禮』
10. 『荀子』

61) 張維, 『谿谷集』 8卷 「畸庵記」, 한국고전종합DB, 1994 : 陰陽之數奇偶而已矣 陽之數奇 奇者獨 陰之數偶 偶者對 推之事物則奇爲寡合爲特立爲無助而其類爲君子 偶爲附離爲遭遇爲多援而其類爲小人.

62) 董仲舒, 南基顯譯 『앞의 책』 「爲人者天」, 322쪽 : 人之形體化天數而成.

63) 邵康節, 노영근 옮김, 『앞의 책』 「官物外篇」, 240쪽 : 有象必有數 數立則象生.

11. 『道德經』
12.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종합DB.
13. 徐居正, 『東文選』 한국고전종합DB
14. 鄭之雲, 『天命圖說』 청구기호奎7020, 奎 7846
15. 張維, 『谿谷集』, 한국고전종합DB.
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종합DB
17. 李滉, 『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1976
18. 董仲舒, 南基顯 譯, 『春秋繁露』, 자유문고, 2005
19. 黎靖德, 허탁 이요성 역, 『朱子語類』, 도서출판 청계, 2000.
20. 장성규 김혜정 역, 『완역 풍수경전』 「狐首經」, 문예원, 2010
21. 吳蘊, 『陽宅撮要』 北京 北京理工大學出版社, 2008
22. 邵康節, 노영근 옮김, 『皇極經世書』, 대원출판사, 2009
23. 김은중, 『韓國의 書院建築』, 문운당, 1998
24. 文化公報部, 『韓國宗教便覽』, 啓文社, 1984
25. 葉正삼, 『說文解字注』, 서울대출판부, 2008
26. 馮禹, 김갑수 옮김, 『동양의 자연과 인간이해』, 논형, 2008
27. 이기동, 『주역강설』, 성균관대출판부, 2008
28. 万書元, 『古風老書院』,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3
29. 김석진, 『周易講解』, 大有學堂, 2009
30.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31. 班固, 신정근 역주, 『백호통의』, 소명출판, 2005
32. 崔於中, 『十勝地風水紀行』, 동학사, 1992
33. 劉沛林, 『風水 中國人的環境觀』,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5
34. 高友謙, 『理氣風水』, 北京 團結出版社, 2006
35. 노병한, 『陰陽五行思惟體系論』, 안암문화사, 2005
36. 張其成, 『象數易學』中國 廣西科學技術出版社, 2009
37. 김서진, “서원건축 감상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4
38. 도용호, 이재현, “士林의 性向과 書院建築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4호 통권78호. 1995

접수 2011. 10. 3
 1차 심사완료 2011. 11. 7
 게재확정 2011. 11. 25